



정책현장탐방

-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꿈꾸다
: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꿈꾸다 :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센터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던 가족 서비스의 보편·통합적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6년 1월 기준 전국 78개의 통합서비스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젠더리뷰 가을호 정책현장탐방은 2015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취재하였다. 센터 사무실에서 안희정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2008년부터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별 운영되어 왔으며, 저는 2012년부터 센터장을 맡아 왔습니다. 2014년 통합서비스 시범운영 사업이 시작된 이후 본 센터의 조직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건가·다가센터¹⁾ 사업 통합 이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 4개 사업 영역에 대해 필수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건가·다가센터 간 통합의 의미와 통합 전후의 운영 변화, 서비스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가·다가센터 간 통합에 대해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전체 가족유형으로 포함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지의견이 많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약화를 우려한 고민도 존재합니다. 우리 센터의 경우, 다문화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통합이고, 가족 문화 안에서의 다문화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센터로의 전환 이후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예방차원의 서비스에서 확장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1) 이하 본 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 “건가”, “다가”로 약칭하도록 한다.



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이 일반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취약위기가족, 맞벌이 가정 등으로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나 문제해결 측면의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원시간이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확대되었고, 개별 센터의 재량적 운영 범위가 넓어져 지역 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건가와 다가센터 사업의 근거법령이 각각 존재하고, 행정이나 회계 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실질적 기관 운영 상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²⁾. 또 통합서비스 사업의 큰 틀만 제시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기반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한 점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 센터장

3. 건가와 다가사업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유사점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많습니다. 통합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특성 및 형태는 달라도 가족 차원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한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차별화된 요구는 “이주”라는 생애사적 사건으로 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센터의 프로그램은 한문화/다문화가족 등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 서비스의 경우 모든 가족이 동일하게 참여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의 방법 차이는 존재합니다. 현장체험형 프로그램은 언어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언어능력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일례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가족 참여자의 언어수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거나, 다문화가족과 한문화가족 비율을 의도적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결혼이주민의 인권 및 지역 정보제공/지역사회 역할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으로서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센터 내 프로그램보다는 찾아가는 이해교육(학교 및 어린이집 현장 방문) 및 지역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 등 지역 프로그램에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으로서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설치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고 있다.



나눔장터 음식나눔부스



가정방문서비스

4.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한부모 가족, 1인가족, 공동체 가족 등)의 등장 및 가족특성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가족 구성원의 특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족의 기능 즉, 구성원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지지,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적 역할 부여 기능 등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과 가족 특성의 변화에 따라 젠더관점을 반영한 “가족기능의 회복”이 주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체로서의 지지기능과 함께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 존중, 가족 간 역할·의무·권한의 공유 및 균등 배분을 도모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센터의 사업은 가족 기능의 결핍을 보완해주고, 지역 체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통합센터로의 전환은 예방과 더불어 문제해결로의 연계가 가능하게 합니다. 일례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시간관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가구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구와 자원봉사자 간 1:1 결연사업을 통한 결핍기능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죠. 또 통합센터 필수사업인 맞벌이 가정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노무상담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시 다문화인구 현황 및 특성, 센터 사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5년 기준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는 구별 특성이 상이한 만큼 다문화가족 특성 역시 지역별로 다릅니다. 용인시 다문화인구의 50% 이상이 처인구에 거주하는 반면, 다문화인구가 가장

3) 2015년 12월 기준, 용인시 전체 외국인 인구는 16,650명이며, 이 중 처인구 거주자가 9,028명으로 54%, 기흥구 5,009명으로 30%, 수지구가 2,613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용인시, “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참조).



작은 수지구 주민의 다가센터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³⁾. 또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요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제적 지원 요구가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사회참여 및 여가실현 등의 요구가 높은 지역도 존재합니다.

우리 센터는 지역별 차별화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프로그램은 부모 역할교육 및 자아실현,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다양하게 운영하는 한편, 접근성이 낮은 지역 결혼이주민을 위해 프로그램 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많은 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의 강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6. 통합서비스 센터의 고유 사업으로 [가족돌봄] 및 [지역공동체] 지원이 있습니다.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한 가족돌봄 프로그램 및 지역 공동체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이전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돌봄을 가족 내 의무에서 사회적 의무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지역 사회의 효과적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가족 돌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족품앗이 팀을 모집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 가족품앗이, 가족봉사단, 아버지모임 등 공동체를 통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의무를 인식시키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의 경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월 1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참여 가족의 경우 아빠가 함께 하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남성의 가족활동 참여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가족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은 물론 지역 사회 지원까지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

7. 사회 구조 및 가족 내 관계 변화 속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인 센터 역시 남성의 돌봄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돌봄참여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이나, 적극적 참여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고,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남성의 돌봄 공유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에 익숙하지 못한 남성들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돌봄 참여에 대해 당연한 의무라 여기는 한편, 실제적 참여는 어려워하는 등 인식과 실제 간 괴리가 커, 이 간극을 없애는 노력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남성 교육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자녀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좋은아빠되기프로젝트”의 목공체험, 보드게임, 놀이학교 등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구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자녀를 둔 아빠의 경우, “아빠와함께하는비전찾기” 등 자녀와 아빠의 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아빠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빠놀이학교”에 참여하신 한 남성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도움



아빠놀이학교 활동

을 주시기도 합니다.

8. 향후 센터의 발전 방향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건가·다가 혹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은 가족 사업의 향후 방향성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특성,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지원센터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죠. 이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 즉,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중앙과 개별 센터 간 효과적 협력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와 가족,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 방향 정립과 지역 사회 내 효과적 정착이 함께 해야 하죠. 통합과 다양화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회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